

시론



천 세 진 문화비평가·시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됐던 해인 2017년의 9월 어느 날의 서울 강서구,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아이들을 생각해달라고 호소한 학부모들이 있었다. 국가적 정의가 실현됐던 시기에 약자를 위한 일상의 정의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우리는 그때보다 정의로워졌을까? 최근 블로그 이웃의 글에서 계절근로자로서 와서 힘들게 일하고도 월급을 받지 못한 채 그가 있는 지역으로 온 베트남인 부부의 사연을 소개했다. 밀린 임금을 받아주기 위해 알아보는 중에 그런 사례가 허다하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그런 한국의 모습에 분노한다고 쓰고 있었다.

여기저기서 “승리했다”는 말이 들린다. 승리는 싸움과 전쟁에서 쓰이는, 적대적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흔히 나오는 말이다. 우리는 정말로 승리했을까? 그런데 왜 한 번의 전투에서 승리했을 뿐이고, 전쟁에서는 졌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걸까. 그것이 명백하고 피할 수 없는 사실인지 모른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계급 주도 세력이 한국 사회의 최상위 자리까지 승승장구하며 오를 수 있었던

어두운 정원의 두 정의

것에는 그만큼 생태계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과연 그 상황과 무관한가? 수십 년 동안의 저열한 정치적 상황, 반복되는 역사적 비극과 무관한가? 극명하게 대치한 몇몇 역사적 장면에서 정의로운 편에 섰다고 해서 정의롭다고 믿는 것은 착각이다. 우리는 돌발적인 역사적 사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하나의 큰 사건에 대한 태도만으로 정의를 말할 수 없다.

정의에는 두 가지가 있다. 정치의 정의와 일상의 정의다. 정치의 정의는 차라리 실현하기 쉽다. 평소 일상의 정의와 멀리 떨어져 살다가도 정치적 사건에 대해 얼마든지 정의로운 발언을 할 수 있다. 화려한 말과 몇몇 간단한 행동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어려운 것은 일상의 정의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것,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떠들지 않는 것 같은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부터 정의로워야 하기 때문이다. 일상의 정의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난다. 말로 이루어지는 정의는 ‘가식(假飾)의 정의’일 수도 있고, 정치적 정의는 그럴 가능성이 크다. 진정한 정의는 일상의 정의이고, 정치의 정의도 일상의 정의에서 길러진 것만이 진짜다.

일상에서 정의와 민주가 실현되지 못하면, 정치의 정의는 쉽게 허물어진다. 불과 8년 만에 정치의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된 것은 일상의 정의는 조금도 성장하지 않았는데, 정의를 성장시켰다고 믿는 착각 때문이다. 8년 만에 다시 국가적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80% 가까운 국민이 동의하고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곳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갈취하는 야만이 벌어지고 있다. 그 두 가지 풍경을 따로 떼어놓고 정의를 말하지 않고,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의 정의를 평가해야 한다.

단 한 번의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특정한 곳에서만 이루어진 정의도 정의가 아니다. 정의가 모든 곳, 모든 상황에서 매번 이어져야 하고 흔들리지 않는 생태계를 이뤄야 한다. 우리는 그런 생태계를 만드는 데 실패했고, 그 결과물을 보고 있다. 윤석열 부부가 일상의 정의와 거리가 멀다는 정보는 충분히 알려져 있었으나, 그는 대통령이 됐다. 지금의 풍경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 힘’의 실패를 상징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패도 함께 상징한다.

우리는 일상의 정의를 정치의 정의와 연결해 사유하는 생태계를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 그런 생태계를 만들었다면 계급과 탄핵의 비극은 물론이고, 보이콧, 전세 사기, 흉악 범죄, 술 취한 차들의 질주, 갑질, 외국인 노동자 착취 같은 정의롭지 않은 풍경은 만나지 않았을 것이다.

한 나라의 정의는 정치적 수사(修辭)에 있지 않다. 일상이 얼마나 정의롭고 평화로운가로 평가해야 한다. 한 장면에서 정의로웠다고 그 영화를 정의를 노래한 영화라고 평할 수 없다. 삶의 정원 ‘한국’은 아직 어둡고, 어두운 정원의 중심에는 두 개의 나무가 서 있다. 일상의 정의와 정치의 정의의 나무다.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다. ‘일상의 정의’ 나무가 너무 작다. 그 나무를 크게 키우려면 정원은 밝아진다.

社說

제주항공 참사 피해 지원 특별법 차근차근 준비해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국가예도기간이 지났고, 희생자 장례 절차가 마무리됐지만 추모는 계속되고 있다. 관계 당국의 본격화된 원인 조사와 함께 유가족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준비도 서둘러야 한다. 희생자의 대다수를 차지한 광주·전남지역 주민들은 유족의 슬픔을 나누고 치유를 위해 함께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광주시는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심리 회복을 위한 자조 공간인 ‘1229 마음센터’ (가칭) 조성에 착수했다. 특별법에는 경제·의료 지원, 심리적 안정을 위한 공간 마련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유가족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수시로 만나는 거점인 마음센터는 전일빌딩 245 건물 내로 예정하고 있다. 전남도 또한 심리 상담과 돌봄 강화, 긴급생계비 신속 지원과 더불어 특별법, 추모 공간 조성 등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추모 공간은 무안국제공항 인근에 약 400여 원을 들여 약 7만㎡ 규모에 추모탑과 추모홀, 방문객 센터, 유가족 위로를 위한 숲과 정원 등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유족들과 지속 소통하는 것이 우선이다. 갑작스런 비보부터 장례를 치르는 것까지 경황이 없었고, 아직껏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객관적·합리적인 진상 규명부터 협력해야 한다. 이후에 특별법의 구체적 내용 등에 있어 협의하고 결정되어야 한다. 국회의 협력도 요구된다.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난 예방 대책까지 망라한 특별법에 대해 공감대를 확장하는 것이다. 특히 광주시와 전남도가 사전 조율해 유사·중복사업을 막고,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유족들은 장례 뒤 눈 내리는 무안공항에서 다시 만나 서로를 위로했다. 아직 이들이 있어야 할 곳은 황망함이 가득한 공항일지 모른다. 일상으로 돌아가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다. 분향소 운영은 사고 수습 완료때까지 유지돼야 한다. 물론 심리·경제적 안정을 위한 특별법도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 지금처럼 유가족을 세심히 살피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길 바란다.

광주형 일자리 GGM 파업은 공동체 신뢰 깨는 행위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가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사 문제는 상생발전협정에서 명시한 협력적 상생의 틀 안에서 해결돼야 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 찬성 88.9%로 의결했으며,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이번주에는 부서별 순환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쟁의권 확보 절차를 진행했지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중재로 철회했다.

GGM은 노·사·민·정(勞使民政) 대타협을 통해 무파업 운영을 내걸고 만들어진 ‘광주형 일자리’다. 근로자 연봉은 3천500만원 가량으로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나 대신 주거와 복지 지원 등 사회적 임금을 지급하는 상생형 기업을 표방한다. 상생발전협정서 상에도 안정적인 노사 관계 정착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협의회를 구성하고 결정 사항의 유효 기간은 55만대 달성까지로 기재돼 있다.

지역사회에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앞서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의 노조는 “파업은 회사의 성장과 지역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설립 초기부터 강조해 온 상생의 가치를 존중하고 갈등이 아닌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사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히 노사민정의 ‘신사협정’으로 치부하고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문제 제기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미국발 ‘트럼프 충격’도 예상되는 등 심각한 위기다. 파업이 장기화되면 존재 기로에 설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모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시기가. 노사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지역사회의 동행하기 위한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 신뢰를 깨신 안 된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상대를 인정하고 중단없이 대화해야 할 것이다.

GGM의 최대 주주는 광주시가 출연한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이며, 2대 주주는 캐스퍼 생산을 위탁한 현대자동차다. 이밖에 광주은행, KDB산업은행 등 3개 기관 기업이 주주단을 구성하고 있다. 단순한 기업이 아니다. 어렵게 만들어진 청년 일자리다. 지역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기고



성 정 민

(주)코리아모빌리티그룹 대표이사

모터스포츠는 인간의 기술적 창의성과 열정이 집약된 문명의 결정체이자 세계가 주목하는 거대한 산업이다.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로 꼽히는 모터스포츠 F1그랑프리에는 단순한 속도 경쟁을 넘어 기술 개발과 국가 간의 교류를 이끄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모터스포츠는 여전히 제한된 관심 속에 머물러 있어 대중화와 산업화로 가는 길은 더디기만 하다.

국내 모터스포츠는 전문 선수들만의 영역으로 높은 비용과 위험을 수반하는 일부 매니아층만의 스포츠로 여겨져 왔다. 이는 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

지난 2024년 10월 7일 (주)코리아모빌리티그룹(KMG)이 국제공인을 받은 국내 유일 1등급 전남도 국제자동차경주장인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KIC)의 관리사무 운영 수탁자로 선정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KMG는 단순한 운영 사업을 넘어 이 기회를 통해 모터스포츠가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스포츠 문화로 자리 잡고 글로벌 무

대한민국 모터스포츠 산업화 전남서 활짝

대에서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KMG는 이를 위해 KIC의 연간 운영 일수를 기존 240일에서 2029년까지 310일로 증대시키고 방문객 수도 연간 12만명에서 60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을 수립했다. 효율성 제고와 지속가능한 자립수익형 모델을 정립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한다는 방침이다.

민간위탁 운영계획에 따라 첫째, 유휴공간을 활용한 신규사업으로 키지니아 직업체험, 모터스포츠 기업유치, 유튜브 영상 프로그램 운영, 드라마 영화 촬영 대관과 창업공간 지원사업 등을 지속 발굴해 활성화에 기여한다. 둘째, 경주장에 식음료 및 편의점 등의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수목 정비와 꽃나무 식재 등 환경을 정비해 ‘모빌리티 파크’를 조성, 모터스포츠 대중화에 기여한다. 셋째, MOTO GP(모터사이클의 F1) 국제대회 유치와 월드스타 선수를 육성해 대한민국 모터스포츠 산업화의 초석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KMG는 국내 모터스포츠 전문기업으로 바이크 대회인 AKRC(한국 로드레이스 챔피언십)와 레이싱팀인 KIMA RACING을 운영하고 있다. 2023년에는 자회사인 중부권 최대 복합유양관광단지 ‘블랙스톤 벨로레리조트’에 국내 최초로 국제자동차연맹(FIA) 공식 인증을 받아 국제카트경기장인 ‘모토아레나’를 조성하고 각종 모터스포츠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모토아레나는 국내 유일 국제공인 서킷으로 300억원을 들여 길이 1.5km로

조성했다. 현재 바이크·카트 대회 및 자동차 관련 기업행사 개최 중에 있다.

또한, 모터스포츠 분야에서 제2의 김연아를 발굴하기 위한 유소년 국제모터사이클 대회인 MiniGP 월드시리즈 참가선수 육성을 위해 올해부터 ‘MiniGP 코리아 시리즈’를 유치·개최하는 등 KMG의 열정과 전문성은 국내 모터스포츠 산업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중요한 자산이 되고 있다.

선수 출신인 원성역 KMG회장은 모터스포츠의 산업화를 위해서는 국민이 함께 응원하는 국제적인 선수 탄생이 최우선이라는 철학으로 선수 발굴에 힘써오고 있다. 이를 위해 체계적인 유소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KIC에서의 레이싱 경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2025년 1월 KMG는 전남도와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KIC 운영을 시작한다. 전남도의 풍부한 자연환경과 남부권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국내 모터스포츠 중심지로 도약할 준비를 마쳤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모터스포츠의 산업화와 대중화를 동시에 이루기 위한 단계적 계획을 실행하고 단순히 스포츠의 범위를 넘어 전남도의 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발전, 그리고 국제적 교류 증진이라는 더 큰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변화와 혁신을 통한 KMG의 도전이 글로벌 경기 개최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모터스포츠 산업의 역사를 써나가는 기업으로 전남도민과 함께 성장할 수 있길 기대한다.

독자투고

로맨스 스캠이란 연애를 뜻하는 ‘로맨스’와 사기를 뜻하는 ‘스캠’의 합성어다.

보통 불특정 다수의 이성에게 접근해 지속적인 친분을 쌓다가 데이터나 결혼 등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상대방에서 금전을 요구하는 ‘연애빙자 사기수법’이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2023년 10월 기준 로맨스 스캠으로 인한 피해규모는 48억6천만 원에 달한다.

대부분 SNS나, 인스타 DM을 통해 접근해 ‘사랑한다’, ‘너와 결혼하고 싶다’, ‘현재 해외에 살고 있는데 보러 갈테니 비행기 값을 보내달라’며 피해자들에게 금전을 요구하거나 가짜 가상화폐 거래소에 투자를 권유하는 등

연애 빙자 사기수법 ‘로맨스 스캠’ 주의보

의 다양한 수법을 사용해 피해자를 기망한다.

이렇게 방심하다가 큰 돈을 잃게 만드는 로맨스 스캠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 SNS에서 낯선 사람이 보내는 메시지를 읽지 말 것, 두 번째, 금전 대화 유도 시 범죄를 의심해 볼 것, 세 번째, 상대방이 보내는 URL에 접속하지 않을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 같은 방법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지만, 피해를 당했다면 입금내역, 대화내용,

계좌번호 등 증거자료를 지참해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사기 URL을 받은 경우 인터넷진흥원에 해당 URL 차단을 신청하고 입금 은행에 지급정지 및 반환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마음도 다치고 큰 돈까지 잃게 되는 로맨스 스캠, 어쩌면 따뜻한 애정이 부족한 우리 사회에서 주변인들에게 더 큰 관심과 애정을 보내야 하는 신호가 아닐까.

〈김수연·장흥경찰서 여성청소년계〉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침물어는 詩

별책

배옥주

수성도서관 어린이실 시각장애소녀가 아트북을 만드네 책장마다 별을 오려붙이네 촉각 그림책에 별이 돋네
민들레가 노란 별뿔을 썼어요 저녁 짓는 엄마 냄새 같아요, 피노키오 거짓말은 또 일 센터 자랐어요 토성 이 긴 귀고리처럼 달랑거려요, 물방 자리로 이시간 주머니도서관에서 도깨비들이 줄넘기를 하네요 흑흑

뎨 흑부리 할아버지 흑보다 큰 웃음 주머니에서 함박별이 쏟아져요
소녀의 눈빛이 총총, 그림책에 박혀 있네 이야기를 넘길 때마다 야광별이 뜨네 사다리를 타고 오른 아이가 책속에 가득 열린 별을 따네 (시집 ‘오후의 지퍼들’, 서정시학, 2012)



[시의 눈]

푸른도서관 어린이실에 민서가 촉지용 그림책을 만듭니다. 모양과 크기가 다른 별을 조심조심 오려 붙이네요. 까만 오목선을 따라 기워붙입니다. 선 밖의 우주를 잘라내지 않으려 주시하지만 볼 수 없습니다. 별은 밤하늘에만 박힌 게 아니지요. 아이의 별책이 푸른 하늘에 펼쳐집니다. 아빠가 사준 별나라 스케치북 첫 장에 물방자리별 빛을 붙입니다. 그러자 도깨비들까지 별에 다다르려 해요. 흑을 때리는 흑부리 할아버지가 웃음을 쏟아내는군요. 민서는 가만가만 사다리에 올라 흑을 따듯 별 하나를 오릅니다. 별이 쏟아져 별책이 다치면 별책부록이 필요하단 걸 물론 알고 있었어요. 새로운 별로 가득 스케치북의 세상을 펼칩니다. 새하얀 눈발에 엄마 아빠는 함박별이 수놓아지길 기다리지요. 배옥주 시인은 부산에서 나 2008년 ‘서정시학’으로 등단했고, 시집 ‘The별강’(2017), ‘리움리움’(2024) 등을 펴냈습니다. 그는 혼란을 비정하는 감각으로 삶의 온기를 빚어 우리 내면까지 꺼져주는 시인입니다. <노창수·시인>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161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9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업무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0원